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공성 제고에 관한 연구*

이상훈 (한남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비대면 시대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공공성

1. 비대면 시대 온라인 공간
2.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공공성

III. 비대면 시대 탈공간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위한 '선교적 교회'

1. 비대면 시대 교회와 탈공간성
2.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교회'

IV. 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공동체 프로그램

1. 공공성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2. 초고령사회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공공성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02>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8412).

• ABSTRACT •

A Study on Enhancement of Church's Publicness
in the Non-face-to-face Era

Research Prof., Lee, Sang-Hoo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churches in the local community can enhance their publicness in the midst of the expanding non-face-to-face era and online culture. In contrast to increasing non-face-to-face culture, the lack of onlin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brings about decline in social capital and publicness and as a result, the enhancement of social capital and publicness has grown in importance in the non-face-to-face era and online space. Therefore, by vitalizing good function of online space in the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real world, instead of dichotomizing them in binary thinking, we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missional church and actively practice public faith and carry out citizenship in the local community and public spheres free from limitation of physical space and time. To this end, churches deemed as communities of fellowship and sharing should focus on the fact that cyberspace is increasingly becoming a new mission field, and produce and supply online contents and programs for public faith and citizenship. In doing so, they can contribute to building social capital and enhancing their publicness by helping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n the community to get involved in promoting social trust and the community well-being.

Key words: non-face-to-face, online, social capital, publicness, the communion of saints, missional church

I. 들어가는 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우리 삶의 질과 방식에서 큰 변화의 전조를 보여주었다. 상호접촉이 동반되는 인간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인 면대면 대화가 자제되었다. 불가피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우리는 오프라인 물리적 공간에서 비접촉 비대면의 온라인 공간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 이주를 강요당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팬데믹과 무관하게 디지털 문화의 급속도로 비대면의 점차적인 일상화와 선호도의 상승은 우리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행하도록 해왔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도가 주요 사역은 60~70%, 현장 예배는 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거나 옮겨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교회는 공적 존재로서 속한 지역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위해 이웃과의 나눔이란 본질적 성숙성을 표현해야 하기에, 공동의 이익과 번영 및 공적 신앙을 포함하는 공공성¹⁾ 담론에 참여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 제고의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온라인의 탈(물리)공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게 만들었다. 비대면 온

1) 여기서 필자는 공공성을 공익성, 공유성, 공개성, 책임성 등의 의미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공공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서울: 책세상, 2009), 21-34; 신진옥,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 세계」 no. 11(2007), 18-39; 박통희, 신효원, “공공성 개념의 근대적 구성요소와 동태적 모형: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적 관점,” 「행정논총」 제58권/제3호(2020), 93-124.

라인 활동과 비중이 증가하는 시대에 공적 존재로서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위한 조건과 전제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의 관점과 영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탈(물리)공간 개념을 수용하고 온라인 공간에 공적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데 있을 것이다. 교회와 복음이 거부되는 공간과 수용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직,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공유되지 않은 때와 공간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온라인은 엄연히 존재하는 공간화된 현상이기에 공공영역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 두기는 공적 신앙 실천과 교회의 공공성 제고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비대면 온라인상에서의 신앙 활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오프라인(현장) 교회나 특정 현실 공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참할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공적 신앙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공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화할 수 있다. 이처럼 비대면 온라인 공간으로 교회 사역의 확장은 제공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교인들의 공적 신앙의 실천과 비교인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 및 참여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비대면 온라인 활동과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다층적 공적 의미를 지닌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참여)은, 물리적 공간에서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회와 영적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이들까지도 더욱 통합적인 교류와 공동체, 상호 간 연결성,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공유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탈기독교 시대”²⁾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학은 “공적 삶의 체제와 정책

2) Jim Davis, Michael Graham, Ryan P. Burge, *The Great Dechurching*, 정성목 역, 『탈기독교시대 교회』(서울: 두란노, 2023), 26-61.

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야 하므로³⁾ 교회의 공적 역할과 교인의 공적 신앙은 제약되어서도 경시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공적 역할과 신앙은 기독교가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⁴⁾ 원칙과 일관된다. 이 역할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장성을 지니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원화해 가며 내용과 경계를 새롭게 개척하는 속성을 지니기에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매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검증하고 확산하는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그 결과 공동체의 번영과 신뢰 사회의 회복과 개인의 행복을 구현하는 전제와 조건에 관한 고찰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윤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소유하고 점유되어 특정되고 제한되는 공간의 틀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열려 있고 호혜적인 공유와 교류의 공간 개념으로 이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기반해, 비대면 온라인 공간이 공동의 삶에 유익하고 지역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되도록 돕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 그리고 지속적인 확장과 다양화는 공공영역으로서 디지털 공간에 대한 교회의 참여와 공공성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사회자본과 공공성을 살피고, 비대면시대 탈공간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위한 신학윤리적 근거로서 ‘선교적 교회’를 분석한 뒤, 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공동체 프로그램과 그 예로

3)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xi.

4)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5 (2013), 47;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42-58; 윤철호, 『공적신학』(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329-358.

초고령사회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공공성에 관한 제안으로 진행될 것이다.

II. 비대면 시대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공공성

1. 비대면 시대 온라인 공간

코로나19 기간, 대인 간 모임 금지가 사회와 개인의 삶에 스며든 새로운 관계 방식과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중에 비대면화가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로 접속성이 갖는 순기능을 경험하고 있지만, 점차 증가하는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 그것에 비례하지 않는 것도 경험하고 있다. 만일 이어져 있지만 공유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떤 전제나 조건 없이 신뢰와 공동체성의 확보로 결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⁵⁾ 이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비대면 상황은 물리적 장소 혹은 현실 공간 중심의 많은 활동을 심각히 제한시켰다. 동시에 이는 비대면의 연결성을 위한 중요한 도전이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의 도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대면 접속은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과 오프라인 공동체에서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며 “온라인 정보에만 탐닉”함으로써 “밀실 안에 갇히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⁶⁾ 사이버 공간은 가령 계속되는 “타인의 삶의 구경”과 “비교” 및 세상과의 “절연”과 그로 인한 “자괴감과 우울증”으로 “미디어에 매몰”되어 “대면 소통의 사회적 기술”의 결여를 초래할 수 있

5) 김경필, “카스텔의 네트워크사회론 비판,” 『사회와 이론』 (2012. 5), 383;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김목한 외 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경기과주: 한울, 2003), 612-614.

6)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뉴노멀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서울: 문학과학사, 2022), 89.

다.7) 이를 반영하듯 비대면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코로나19 기간과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타인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에서 대인 신뢰도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의 접촉”은 계속해 늘어나고 비중도 커졌지만,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즉흥성”이 요구되고 “호감과 비호감의 이분법”이 활용되며 “선호하는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이어주는 “추천 알고리즘”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이들과만 교류하게 해 “확증 편향”을 유발한다.9) 그 결과 온라인 공간이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0) 이는 공공성 제고와 궤를 달리하는 사회 문화 현상이며,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이 반드시 상호관계와 공동체의 강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비대면 온라인의 역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새로운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뿐더러 공적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기와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였고11)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불편함에서 적응의 단계를 지나 점차 선호하게 되었으며 대면 활동을 두고 선택하는 경향까지 의료, 교육, 유통(산업), 직장 등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12) 예를 들어

7) 위의 책, 90.

8) 여유진,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18호 (2022), 5-6.

9)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98.

10) 위의 책, 98.

11) 배영임, 신혜리,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no. 416(2020), 1-22.

12) 노영희, (2023. 3. 3.), “학술대회는 역시 오프라인... 의사 80%, 온라인 선호” 『Medifonews』,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6119>, 접속, 2024. 2. 27.; 박신원, (2022. 5. 8.), “거리두기 끝나도 비대면이 좋다 ... 진료·스터디까지 변화한 생활상,” 『서울경제』, <https://www.secdaily.com/NewsView/265W20FFXM>, 접속

물리적 대면 접촉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은 점차 확대되고 “비대면” 내지 ‘언택트’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으며”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¹³⁾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오늘날 우리 삶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구조적으로 특징 지우는 기반이 되어간다는¹⁴⁾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적 장소 혹은 현실 공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온라인 영역을 포함하는 공간 개념의 확장과 온라인 활동과 콘텐츠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 의미와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말해준다. 나아가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와 관련해 선교와 공적 신앙뿐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 지향적인 방향으로 적용과 논의를 넓힘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음을 가리킨다.

물론 많은 선호와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더욱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과 ‘가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양자 간 차이의 중요성과 그 각각의 특징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비대면 온라인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등한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물리적 접촉과 오프라인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온라인 대체제의 기능과 역할이 평가 절하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양자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연결되는 ‘현실’을 구현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구현이 비효율적인 경우, ‘가상’의 대체 역할과 효과는 분명히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상이 목적에 더 일치하거나 비대면이 요구될 수 있다. 인간의 공간 점유와 시간 활용은 기술과 기기의 발달에 따라 그 범위와 개념이

2024. 2. 27.

13)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82.

14) 위의 책, 81.

확장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확장된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은 익숙한 기존 개념을 수정하거나 넓히는 촉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상에서 “접속”을 통한 비대면의 방식과 형태로 이전보다 더 많은 “관계적 네트워크와 지식 및 정보의 장”이 주어지게 되었다.¹⁵⁾ 그러므로 상시 접속이 일상 속 어디서나 일어나는 지금 시대는 비대면 온라인 세계와 공간이 목회와 선교 및 공동체 변영의 필수 부분으로 채택되고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모두가 시공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공적 지향성에 부합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변영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한 공공재로 유익한 자료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신앙과 공동의 이익 지향적인 비대면 온라인이 접속과 연결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공급되어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감대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도울 때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공공성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

2.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공공성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의 제한과 편향된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는 온라인 비대면은 이미 신뢰도가 낮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파편화 및 소외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¹⁶⁾ 신뢰와 호혜

15) 박승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과 공동체성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한국조직신학논총』 제69집 (2022), 163.

16) 윤신영(2020. 9. 9.), “코로나19 사태 8개월... 적신희 켜진 ‘신뢰사회’, 쌓인 ‘피로’,” 『동아사이언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9630>, 접속 2024.2.

성 및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기에 본질적으로 직접적 대면과 접촉은 필요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비대면 온라인의 탈공간성은 (특정) 물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모임과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무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과 신뢰 관계가 반드시 물리적 장소와 현실 공간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 접촉이 동반되지 않는 온라인에서도 신뢰와 호혜성을 낳는 상호작용과 접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요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탈공간성의 의미를 담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며, 그것은 비대면 온라인에 기반한 탈장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 등 물리적 접촉의 제한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활동은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 등과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상이한 견해”를 특징으로 하는 “약한 연결 관계”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¹⁷⁾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점차 더해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 대면 접촉의 감소와 미디어 사용의 증가가 사회적 결속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분석 결과는 온라인 활동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밝힌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소통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온라인 사용과 소통의 증감이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동영상과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과 비대면 소통이 늘어날 때 상호 간 “효율적” “정보 공유”

17) 권미옥, 이경탁,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이 사회자본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제28/제5호 (2015), 1490.

와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공유를 통해 강한 유대 관계가 더 강하게 결속하고, 반대의 경우 결속적 사회자본도 그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⁸⁾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접촉과 온라인 연결성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외부 지향적”인 속성을 지녀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체성과 호혜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¹⁹⁾ 디지털 네트워크와 많은 온라인 활동 및 높은 사용 빈도는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의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늘림으로써 가상공간에서의 연결망 강화와 확장으로 이어져 “약한 연결 관계의 증대”와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나 자원에 노출”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여 준다²¹⁾ 이러한 특성과 목적을 담지하고 반영하는 여러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공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교회는 비대면 상황에서 그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는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참여가 “새로운 관계의 구축과 이전 관계의 강화”를 보여줌으로써 물리적 장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공간에서도 다양한 배경과 관점의 개인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²²⁾ 이러한 사실은 비대면 온라인의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디

18) 박문령, 김용찬, “비대면 소통, 미디어 이용, 결속적 사회자본: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패널 데이터 분석,” 『언론정보연구』 59권/1호(2022), 34-36.

19)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정승현 역, 『나홀로 볼링』(서울: 페이퍼로드, 2009), 24-26, 702.

20) 권미옥, 이경탁,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이 사회자본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 1492-1496.

21) 위의 논문, 1490.

22) 위의 논문, 1497-1498.

지털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가져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공동체 전체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그 주체인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공공성의 제고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²³⁾ 사회적 자본은 공공성 제고와 서로에 말미암고 상호 작용한다. 가령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인 신뢰 회복을 가져오는 공공성 제고는 공적 실체로서 교회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동기를 북돋우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함으로써²⁴⁾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고 온라인 연결망을 강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일치하여,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증대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회는 해당하는 여러 시도가 요구되는²⁵⁾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대면적이고 특정 물리적 장소 중심으로 존재하고 규정되는 교회와 사역이 비대면 시대 탈장소적 상황에서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공간 이해와 신학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III. 비대면 시대 탈공간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위한 ‘선교적 교회’

1. 비대면 시대 교회와 탈공간성

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생산성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공공성이 제고될 때 연동하여 확충된다. 그런데 지역의

23) 남춘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의료사협의 역할 분석: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2020년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34-535.

24) 곽윤경,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020), 31.

25) 위의 논문, 31.

공공성과 사회적 자본의 보완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번영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공공성 제고를 통해 “사회자본의 총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²⁶⁾ 주장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전자적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가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고 공공성이 시공의 “물리적인 제약”에서 더욱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²⁷⁾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 “발전”할 수 있다면,²⁸⁾ 코이노니아와 교제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대한 긍정의 정도만큼 공공성 제고에 대한 생산적인 기여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점차 확산함에 따라 신뢰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로서의 교회는 폭과 의미를 넓혀 온라인 공간까지 고려하고 포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공공성 제고와 신뢰 사회 회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물리적 ‘장소’ 중심에서 벗어나 탈공간적 관점으로 옮겨갈 때일 것이다. 비대면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탈공간적 관점은 특정 장소(가령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삶과 신앙의 다양한 계기나 표현이 자유로이 되는 면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비대면 시대 디지털 공간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공적 존재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온라인 사회적 자본이 창출되고 공공성이

26) 김정진, “사회자본 구축과 공공성 회복”, 『월간 공공정책』 vol.146 (2017), 9.

27) 이명진, “네트워크사회의 도래와 공공성의 특성 변화: 영역, 경계, 행위자, 배제를 중심으로”, 『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840.

28) 권미옥, 이경탁,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이 사회자본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 1498.

구축되는 소통과 상호작용이 정해진 물리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어나는 점과 일관된다. 그뿐만 아니라 탈공간적 관점에서 물리적 장소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신앙과 실천에 기초할 때 교회의 공적 역할과 공공성 제고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더욱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길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제와 섬김의 삶에 터 해 사이버 세계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잠재적) 신앙 실천의 장(場)으로 인식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에 기반한 지역의 공동체성 강화를 유발하는 생활 속의 종교와 공적 신앙이 적용되고 제고될 수 있다.

물리적 장소에 다양한 이유로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적인 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 공적이어야 할 현실 공간은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한 이들에게만 열려있는 ‘소유’의 틀에 머물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갖는다. 만약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공유’와 ‘공공성’의 가능성을 물리적, 현실 공간으로 한정한다면 모순과 갈등 혹은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탈공간적 접근은 특정 물리적 장소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포함해 모두에게 열린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탈공간적으로 우리는 특정 물리적 장소 위주로 ‘모이는 교회’의 제도와 체제 중심의(지나칠 때 ‘타율적’일 수 있는) 신앙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대신,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담지자”²⁹⁾ 살아가는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의 ‘자율적’ 신앙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프라인 대면 모임의 의미와 중요성과 더불어 현장 친화적인 우리의 ‘장소감’(sense of place)은 계속해 요구되고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속에 (특정) 물리적 장소 중심의 제한적이고 공간(개념)의 다양성을 막는 진입장벽이 허용될 여지를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타율적으로 기울 수 있는 경직화된 신앙은 의도하지 않게 교회의 공공성 저하와

29) 최동규, 『미셔널 처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99.

신앙의 사사화(私事化)로 이어질 수 있다. 신앙의 귀의와 실천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구조와 공동체는 공적 신앙의 부진과 사회적 자본의 쇠퇴를 낳게 되고 교회와 기독교인에게서 공공성 인식의 감소를 초래하며 그들의 삶과 역할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시대 물리 공간 중심의 제한적이고 경직될 수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 참여적이고 사회적 책임의 의미에서 더욱 공적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탈장소적 공공성을 어떤 신학윤리적 바탕 위에서 전개할 수 있는가?

2.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교회’

공공성의 의미는 공익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라는 측면을 포함한다.³⁰⁾ 교회는 위치한 지역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존재로 기능해야 하기에 공공선 증진의 과제와 목표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³¹⁾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한 기여가 교회의 공공성을 높인다면, 이를 통해 교회는 공적 역할에 충실하여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 존재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를 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통된 과제(가령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처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적 신앙과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사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교회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할 자신의 도전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30) 김세훈, 정기은, “예술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7권/1호(2017), 286.

31) Elaine Graham and Stephen Lowe, *What Makes A Good City?: Public Theology and the Urban Church*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Ltd, 2009), 113. 성석환, “지역공동체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공신학의 실천적 연구,” 『선교와 신학』 33집(2014), 256에서 재인용.

위한 실천적인 교회론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라틴어 상크토룸(sanctorum)이란 단어는 “거룩한 자들의 교제”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들에 있어서의 교제”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의 의미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³²⁾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은사들”, “그들이 부름을 받아 수행해야 할 거룩한 과제들”, “그들이 부름을 받아 수행해야 할 거룩한 기능 등에 있어서의 교제”를 이르기도 한다.³³⁾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구별된 모임으로서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³⁴⁾ “인간의 삶이 미치는 모든 차원과 지평에서 교회의 존재성”³⁵⁾을 드러내는 ‘홀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은사들, 그들이 부름을 받아 수행해야 할 거룩한 기능 등에 있어서의 교제”라는³⁶⁾ 의미는 이러한 교제가 본질적이고 파생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폐쇄적이지 않고 선교와 섬김”으로 “세상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사실은 화해와 교제의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겸손히 자기를 비우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짐을 지며 이웃과 “화해”와

32)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 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 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34.

33) Karl Barth, *Church Dogmatics* 4/2, trans. G. W. Bromiley(Edinburgh: T. & T. Clark, 1958), 642-43. 위의 책, 434에서 재인용.

34)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1991), 380. 최동규, 『미셔널 처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99에서 재인용.

35) 최동규, 『미셔널 처치』, 98.

36) Karl Barth, *Church Dogmatics* 4/2, trans. G. W. Bromiley(Edinburgh: T. & T. Clark, 1958), 642-43.

37)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435.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³⁸⁾ 위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의 삼위일체적 사랑에 참여하고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완성”이³⁹⁾ 예외 없
이 모든 공간에서 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세계도 예외 없이 모든 공간
에서 우리의 교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귄, 곧 서로 사랑하고
받는 “역동적 운동”을 특징으로 ‘상호 내주(perichoresis)’하는 삶을 전시할
때 가장 적절하다.⁴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는 새로운
인간 삶”을 모든 이웃에게도 “열어주는” “자유로운 선물”이며 교회의 본질
또한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교제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⁴¹⁾ 교회의 본질이 모든 이들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삶이 “서로 함께하며, 서로를 위하여, 서로 안에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⁴²⁾ 삼위일체적 삶을
반영하고 아직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교제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웃과 일체감을 느끼고 상호 “돕는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변영”할 수
있다.⁴³⁾

위의 의미에서 사귄 속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서 교회의
역할은 모든 사람, 특히 비기독교인들과의 화해와 사귄과 교류이고 이러
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며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공유
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짐을 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공
간과 기회를 창출할수록 더욱 확장될 수 있듯이, 이웃과의 교제 역시 비
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만큼 관계가 한

38) 위의 책, 435-436.

39) 위의 책, 434.

40) 위의 책, 434.

41) 위의 책, 434.

42) 위의 책, 436-437.

43) 위의 책, 437.

층 넓어지고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미치는 모든 차원과 지평에서 교회의 존재성”⁴⁴⁾을 드러내는 ‘흠어지는 교회’의 역할과 의미가 비대면 시대 온라인 환경에서 이전보다 더 요구되고 확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간적, 시간적 확장성을 지닌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화해와 사귄과 교류 역시 교회가 참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또 다른 형태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흠어지는 교회’의 개념은 폭과 의미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비대면 시대에 정해진 물리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현장과 신앙의 실천에서 점차 비중과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흠어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담지자”⁴⁵⁾로 살아가는 자율적 신앙을 함양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목적에 본질적으로 부합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은 파편화된 시대에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교제를 통해 세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성하게 하기 위함이다.⁴⁶⁾ 서로 간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또한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공간의) 교회가 갖는 공동체성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고 탈장소적 영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흠어지는 교회됨’의 시도로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이론적 바탕은 본질과 특성에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하나 되며 이웃을 섬기고 신뢰를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의 개념에서 예시되며 비롯된다. ‘선교적 교회’ 개념이 성육신 교리에 근거해 전시하는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타인의 삶에 희생적으로” 들어가고 “지역사

44) 최동규, 『미셔널 처치』, 98.

45) 위의 책, 99.

46)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437.

회의 삶과 투쟁에 깊이 참여하여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⁴⁷⁾지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 고통을 겪으며” 같이 아파하는 “연민 어린 사랑”을 베푸는 교회의 행위⁴⁸⁾ “단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한” 자선을 행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상관없이”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⁴⁹⁾ 우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가가기보다 그들의 “현실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⁵⁰⁾ 그래서 교회는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 깊이 공감”함으로써 그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⁵¹⁾ 이처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는 부분을 넓혀가려는 교회의 노력은 상호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직면한 과제와 도전에 우리도 직면해 있다는 현실과 인식 아래서 함께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그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⁵²⁾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면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제와 조건으로서 탈장소적 영성과 공간에 대한 일부의 소유가 아닌 전체의 공유는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과 또한 시간)을 잠재적인 공적 신앙과 책임적 삶의 현장과 계기로 이해한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시대 교

47)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218-219.

48) 위의 책, 220.

49) 위의 책, 220.

50) 위의 책, 220-221.

51) 위의 책, 220.

52) 이상훈,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한 신학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164.

회는 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공적 영역에 공적 시민으로 참여하고 공적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공재로 공급하여 누구나 접속하여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IV. 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공동체 프로그램

1. 공공성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한되고 한정된 물리적 장소의 틀과 인식에 얽매이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공간은 교회의 공공성을 시공의 제약 없이 높일 수 있는 환경과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속적으로 점증하며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갈등과 편견뿐 아니라 소외와 분절로 사회의 신뢰와 교회의 공공성 저하의 터로 기능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교회가 후자의 결과를 방지하는 대안 제시로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며 공공성 제고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선,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주제는 교인들의 공적 신앙 실천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탈장소적 영성이 삶의 지평을 온오프라인 모든 공간으로 더욱 넓힐 수 있게 돕는 것이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인들에게도 공익과 개인 행복 또는 공동체 번영과 자아실현의 조화롭고 상호 보완적인 추구에 실효성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즉,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주제가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을 만큼 공공성의 의미에 부합해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유익하고 설득력이 있어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고 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비대면 신앙 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과 트렌드는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실시한 개신교인의 온라인 사역 인식에 관한 설문

에서도 드러나고 있다.⁵³⁾ 위의 설문에서 물리적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시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될 정도로 ‘온라인 혼련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70%, 74%에 달하며,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항목에 10명 중 6명이 동의(비율 59%)한다고 응답하였다. 설교 듣기와 성경 공부 같은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온라인 신앙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에 이르러 교회의 비대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수요가 크며 제공될 경우에 높은 참여도가 예상된다. 다만 실제로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약간 많으나 양쪽이 모두 절반가량 머물러 공급과 수요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⁵⁴⁾ 이러한 온라인 신앙 교육과 신앙훈련 프로그램, 두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응답의 의미는 높은 수용도와 필요성 제기를 고려할 때 다양한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제작 및 온라인 공유가 요구되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교인들의 탈장소적 신앙과 영성이 그들의 삶의 지평을 지역사회로 더욱 넓힐 수 있게 도움으로써 교회의 공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⁵⁵⁾ 시도는 단지 비대면 온라인 환

53) 송경호(2023. 7. 3.), “비대면으로도 충분” 1위는 ‘성경공부’, 2위는 ‘설교’... 프로그램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5412>, 접속 2024. 1. 15.

54)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6. 27.), “개신교인의 온라인 사역 인식”,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0#, 접속 2024. 1. 15.

55)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공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박승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과 공동체성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171).

경에 부합하여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일만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공은 이미 존재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홀어지는 교회’로서 교인들의 공적 신앙을 진작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주제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결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과제로 자주 제시되는 것은 “마을 단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례화”, “학교와 시민 교육을 통한 신뢰, 협력, 연대 제고”, “사회공헌 및 봉사 활동 활성화”,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공동체의 번영, 행복과 자아실현, 신뢰와 호혜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공급 등이다.⁵⁶⁾ 이에 호응하여 동일한 과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가 교회의 공공성 제고와 낮아진 사회적 신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안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선교적 교회’에 충실하여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과제와 도전에 우리도 직면해 있다는 현실과 인식 아래서 이들을 교회 사역의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내용의 자료가 공공재로 제작, 공급되는 온라인 공간이 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공적 영역이자 광장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게 하는,⁵⁷⁾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

56) 여유진 외 4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12), 289; 박윤경,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31; 김원재, 유동민, “초고령사회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vol. 28/ no.1 (2022), 21-22;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57-166; 이소영, 오신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7), 95-99.

57) 전명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 종교공공사회학적 접근,” 『종교와 문화』 제32호 (2017), 64-65.

2. 초고령사회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공공성

이러한 주제와 방향은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과 봉사, 공동체의 번영, 개인의 행복, 사회적 신뢰 및 호혜성 등 공익과 자아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성에 상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이자 교회와 지역이 함께 맞닥뜨린 공통 과제인 ‘초고령사회’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교회가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의 한 예로 중고령자들을 위한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이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교회의 공공성 제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학윤리적 주제들을 선택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살피고자 한다. 사실 유사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교회와 신학 외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제작되어 공급될 수 있기에 교회와 신학만이 특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와 설득력으로 이웃과 지역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차별성과 정체성이 프로그램에 담겨야 한다.

1) 지역사회 섬김과 봉사

하나님 나라는 온갖 굴레로부터 놓임으로써 기여하고 생산적인 자유를 누리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가령 주도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창조적 의미를 실현한다.⁵⁸⁾ 중고령자들의 자유의 실현은 개인과 신앙과 지역공동체 모두를 연령에 따른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제2 인생’의 역동성을 지닌다. 중고령자들의 섬김과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58) Erich Fromm, *The Heart to Man*,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 (서울: 문예출판사, 1977), 84; 김옥순, “종교개혁 핵심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17), 202-209.

울타리를 벗어나 공적 신앙을 가지고 공공영역과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다. 섬김과 봉사는 지역에 위치할 뿐 아니라 지역의 한 부분인 교회를 지역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지역공동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 하나가 되게 한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웃과 공존하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교회가 제공하는 섬김과 봉사를 독려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재능 나눔과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시민성을 공적으로 진작할 수 있으며 자기 삶과 역량을 사적이고 개체화된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으로 형성되기에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역량과 재능이 길러지며 봉사와 섬김은 공적 시민으로서 참여나 공적 신앙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공성 또한 제고시킨다.⁵⁹⁾

2) 공동체의 번영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는 “풍성한 삶” 곧 “인간과 온 창조 세계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⁶⁰⁾ 교회가 제공할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자신을 향한 관심과 만족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⁶¹⁾이란 새롭게 등장한 인간의 번영에 대한 사적이고 왜곡된 이해에서 벗어나게 돕는다. 초고령사회의 공공성은 중고령 이웃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59) Miroslav Volf, *Work in the Spirit*(Eugene, Or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1), 112; 구혜란, “공공성은 위협수준을 낮추는가?: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2집/제1호(2015), 42.

60) Volf, *Public Faith in Action*,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서울: IVP, 2017), 35.

61)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선 기독교』(서울: IVP, 2014), 94.

부여하신 삶의 방식과”⁶²⁾ 조화를 이루어 전개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노력에서 제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번영이 우리의 번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충실한 공적 신앙을 고취시키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⁶³⁾ 모두의 번영을 위한 목표는 ‘이웃과의 공존과 더불어 행복한 조건’을 벗어날 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번영은 “바르게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창조하신 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현실과 세상의 참된 모습에 거슬리지 않게 사는 것”을 뜻한다.⁶⁴⁾ 올바르게 잘 사는 삶을 위한 진정한 사랑(고전 13:13)과 형통한 삶으로서 참 평안(살롬)(사 11:1-11, “건강, 행복감, 복, 공동체의 화합, 친척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상황,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질서에 필요한 모든 것”)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기쁨(마 25:21-23)은 번영의 세 측면으로서 각각 별개이면서 상호 밀접히 관련돼 선순환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⁶⁵⁾ 나아가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적인 삶에서 신앙에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계발해야 할 덕목들이 있다.⁶⁶⁾ 이러한 일련의 성품들은 사랑이 목표이고 사랑에서 말미암는 용기, “정직을 장려하고 화해의 문을 여는” 겸손,⁶⁷⁾ 타인들과 “공동으로 누리는 이익에 관심”을 두고 “사랑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며 이웃이 “받아 마땅한 것 이상을 주는 것”으로서의 정의,⁶⁸⁾ 타인의 “업적이나 덕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따른 조건 없는 존중과 공경심(respectfulness),⁶⁹⁾ 그리고 타인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는

62) 위의 책, 151.

63) 위의 책, 109.

64) 위의 책, 147.

65) Volf, 『행동하는 기독교』, 36-39.

66) 위의 책, 53.

67) 위의 책, 271.

68) 위의 책, 277-279.

것과 “자신의 결함과 악행의 결과로” 받는 고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공휼(compassion)⁷⁰⁾ 등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요구되며 “책임감 있는 공적 참여에 필요”하다.⁷¹⁾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귄과 “상호 간 교제로 부름을 받으며” 우리가 이웃을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신학윤리적이고 공공성을 배태한 명제는 공동체 번영의 조건에 부합한다.⁷²⁾

3) 개인의 행복: 4, 5단계 삶 준비

수명연장 시대에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이 여전히 편견과 관습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계발과 행복한 ‘또 다른’ 삶을 준비해 살도록 4, 5단계로의 진입을 돕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취지나 목표에 따라 예컨대 일·취업, 자원봉사, 자기 이해⁷³⁾의 세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다.⁷⁴⁾ 교회와 신학은 단지 ‘직업능력개발’이나 ‘인적자원개발’에 만족하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소명의 관점에서 ‘삶의 목적’이 ‘경제적 삶보다 우선시되게⁷⁵⁾ 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제와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제2의 인생이 ‘부가된 노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4, 5단계의 삶에 대한 경제외적 측면과 의미를 강조하는 신학윤리적 관점을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령, 소명의 다중성 또는 “공

69) 위의 책, 288-293.

70) 위의 책, 301-305.

71) 위의 책, 41.

72)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436-437.

73) 자기이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보라. 이상훈,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의 기여가능성”, 『기독교사회윤리』 제44집(2019), 329.

74) 위의 논문, 329-330.

75) 위의 논문, 329-330.

시적(synchronic)”이고 “통시적인 복수 직업(diachronic plurality of employment or jobs)”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⁷⁶⁾ 이러한 학습 과정은 중고령자들이 “고정된 상태”로 머물기보다 “목적을 가진 운동”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미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the future)의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일치하여 살아가게 도울 것이다.⁷⁷⁾ 교회와 지역사회에 모두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적으로 응답하는 책임적 존재로서 중고령자들은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하나님의 사역(事役)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전체 공동체에도 의미 있고 생산적인 기여자가 될 수 있다.⁷⁸⁾ 그러므로 “타인의 삶에 희생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역사회의 삶과 투쟁에 깊이 참여”하여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느”⁷⁹⁾ ‘선교적 교회’의 주제와 실천 방법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호혜성

사회적 자본으로서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다른 연령 간의 네트워크는 세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틀을 제공하여 중고령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돼 사적 영역과 신앙에 머무는 3단계 삶에서 벗어나 4, 5단계 삶으로의 이행을 통해 모든 공공영역에서 공적 신앙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는 상이한 나이에 걸친 소통과 교류로 중고령자들이 연령 차별과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제2의 인생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와 지역사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⁰⁾ 본 온라인 프로그램은 중고령자들을 포함해 공동체 모

76) Volf, *Work in Spirit*, 116-117, 190.

77)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255.

78) Van Gelder &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270.

79) 위의 책, 218-219.

든 구성원을 “신뢰 관계 형성으로 이끌게 하는 ‘포괄적 호혜성’이 형성, 유지되도록 ‘과업 지향적’이고 “제한된 헌신”이 특징인 계약(contract) 대신 언약(covenant)에 근거해 “서로가 ‘자아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타자의 존재에 비추어 자아를 재조정”하게 한다.⁸¹⁾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다른 연령 간의 친구 관계나 세대 간 상호작용과 지원과 공유의 네트워크는 청년들과 중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⁸²⁾ 이상적인 인간 삶의 양태, 곧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서로의 짐을 지는 “성도의 교제”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귀이 본질과 특성인 “새로운 삶”을 반영한다.⁸³⁾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삶은 이들과 중고령자들 간의 상호 지원과 교류는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번영에 기여하고 개인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으며⁸⁴⁾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세대의 번성이 약속되기”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으로 이어져 공공성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⁸⁵⁾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비대면 시대 교회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직면한 공통 과제 중 하나인 ‘초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접속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80) Lynda Gratton and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 (서울: 클, 2017), 324-326.

81)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234, 244; 이상훈,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의 기여가능성,’” 331;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서울: 박영사, 2000), 289.

82) Lydia Denworth, *Friendship*, 안기순 역, 『우정의 과학』 (서울: 흐름출판, 2021), 382; Gratton and Scott, 『100세 인생』, 323-325; 이상훈, “바이오필리아(효과)가 공간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6집(2023), 372.

83)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434-437.

84) Lydia Denworth, 『우정의 과학』, 400; Stanley Hauerwas et al, *Growing Old in Christ*. 이라이프아카데미 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에 관하여』, (서울: 두란노, 2021), 280-251; Robert D. Putnam,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289.

85) 이상훈, “바이오필리아(효과)가 공간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372.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한 교회의 공공성 제고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적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번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적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의 삶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⁸⁶⁾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주제가 담긴 콘텐츠는 이미 교회들이 교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시도되었을 수 있으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의 삶에 적용되고 생활에 유익한 공적인 콘텐츠로 재구성되거나, 공적 신앙과 시민을 위해 설득력 있게 개발되어 시공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모두에게 공유될 때 교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디지털 문화의 보급으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의 방식과 형태로 이전보다 더 넓은 “관계적 네트워크와 지식 및 정보의 장을 소유”하게 되었다.⁸⁷⁾ 이에 따라 상시 접속이 일상 속 어디서나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공간이 모두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요구되고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고 공공성은 시공의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의미를 갖는 것”이 되었다.⁸⁸⁾ 공공성이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대면 온라인 공간은 공공성 제고와 사회자본 확충의 장(場)으로 인식되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 온라인 참여 활동의 결여는 면대면 상호작용의

86) 최동규, 『미셔널 처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82; Stuart Murray, *Church Planting: Laying Fountains*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1), 35. 최동규, 『미셔널 처치』,에서 재인용.

87) 박승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과 공동체성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163.

88) 이명진, “네트워크사회의 도래와 공공성의 특성변화,” 835-836.

감소로 대인 신뢰와 사회자본의 저하를 초래함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상호 협력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교육을 통한 신뢰, 교류, 연대 제고와 비대면 공동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공적 삶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 이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저하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이지 않은 연결성과 이어져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접속성의 증가가 사회자본의 확충과 공공성 제고로 결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나 조건이 요구된다. 온라인 공간과 현실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물리적 접촉과 오프라인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약화하는 온라인 공간의 역기능을 부각하는 대신, 양자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온라인 공간의 순기능을 활성화할 때 교회의 공공성 제고와 ‘선교적 교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문화와 비대면 활동이 점증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는 (특정) 물리적 공간에 종속되기보다 온라인 공간도 공적 신앙과 시민성의 현장으로 인식해 적극적 참여와 활동이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신뢰에 기반한 지역의 공동체성 강화를 유발하는 생활 속의 신앙과 공공성이 실천되고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제와 나눔을 본질로 하는 교회는 비대면 시대 디지털 공간이 더욱더 선교지화되어 가는 점에 주목하고 공적 신앙과 시민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공재로 공유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공공영역에서 자아실현이 동반되는 공동체의 번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확충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필. “카스텔의 네트워크사회론 비판.” 『사회와 이론』. (2012), 367-399.
- 김세훈, 정기은, “예술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7권/1호(2017년), 282-307.
- 김원재, 유동민, “초고령사회의 사회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Vol. 28/No.1 (2022), 1-26.
-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뉴노멀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2.
-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 권미옥, 이경탁.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이 사회자본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제5호 (2015), 1485-1503.
- 박문령, 김용찬. “비대면 소통, 미디어 이용, 결속적 사회자본: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패널 데이터 분석.” 『언론정보연구』 59권/1호(2022), 5-49.
- 박승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과 공동체성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한국조직신학논총』 제69집 (2022), 161-200.
- 윤철호, 『공적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이상훈.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의 기여가능성.” 『기독교사회윤리』 제44집(2019), 305~337.
- _____.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한 신학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147~178.
- _____.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3집(2022), 381- 409.
- _____. “‘바이오필리아(효과)’가 공간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6집(2023), 349-380.
- 최동규. 『미셔널 처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4/2*, trans. G. W. Bromiley(Edinburgh: T. & T.

- Clark, 1958),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1991.
- Campbell, Heidi A. Stephen Garner, *Networked Theology: Negotiating Faith in Digital Culture*(Baker Academy, 2016.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김목한 외 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경기 과주: 한울, 2003.
- Davis, Jim, Michael Graham, Ryan P. Burge. *The Great Dechurching*. 정성묵 역, 『탈기독교시대 교회』. 서울: 두란노, 2023.
- Denworth, Lydia, *Friendship*. 안기순 역. 『우정의 과학』. 서울: 흐름출판, 2021.
- Dunbar, Robin, *Friends*. 안진이 역. 『프렌즈』. 서울: 에크로스, 2022.
- Fromm, Erich, *The Heart to Man*,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 서울: 문예출판사, 1977.
- Gratton Lynda,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 서울: 클, 2017.
- _____.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 서울: 클, 2021.
- Hauerwas, Stanley et al. *Growing Old in Christ*. 이라이프아카데미 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에 관하여』. 서울: 두란노, 2021.
-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 · 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Murray, Stuart. *Church Planting: Laying Fountains*.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1.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 Van Gelder Craig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_____.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 _____. *Public Faith in Action*.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

을 실천할 것인가』. 서울: IVP, 2017.

논문투고일: 2024년 03월 16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비대면 시대 온라인 문화가 점차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증하는 비대면 문화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참여 활동의 감소는 사회적 자본과 공공성의 저하를 초래함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온라인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양자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후자의 순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지평을 넓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적 신앙과 시민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제와 나눔을 본질로 하는 교회는 온라인 공간이 점차 선교지화되어 가는 사실에 주목하고 공적 신앙과 시민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통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공공영역에서 자아실현이 동반되는 공동체의 번영을 증진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주제어: 비대면, 온라인, 사회적 자본, 공공성, 성도의 교제, 선교적 교회
